탈춤축제의상개발에 관한 연구

김희숙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Development of the Maskdance Dress Design

Hee-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Abstract : To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its citizens, local festivals is located in one axis of the new culture. These symptoms shows that there is increasing awareness of traditional culture such as Hanr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resentative Dress of Andong International Maskdance Festival to stimulate curiosity and participate easily. 24 villages in Andong were present to represent appropriate Dress of Maskdance Festival which have been announced through the fashion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skdance dress which presented in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making the specialties of each village to tourism resources. Characteristics of the maskdance dress which designed to blend on the mask was as following. ① Maskdance dress should shown well and must have strong durability of strenuous exercise in maskdance ② Maskdance dress should be able to get the sympathy of the spectators. ③ Maskdance dress should be sympathetic as modern costumes. ④ Aesthetics as costumes and requirements as product must be met. ⑤ Acceptance of Andong region's traditional beauty is required. ⑥ Maskdance dress is likely to require long-term use. ⑦ Maskdance dress must be able to accommodate a variety of body conditions.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of 158 spectators and 48 members of fashion show, the relevance of masks and costumes, aesthetic and motility of costumes, commercialization potential, especially costume' motility and functional fitness of clothing sizes was highly evaluated. So maskdance dress or stage costumes as long-term development is likely to be considered. And continued research is needed.

Key words: Maskdance Dress Design, Representative Dress of 24 villages in Andong, Andong International Maskdance Festival, Region's Traditional Beauty, Customer Satisfaction

1. 서 론

탈은 원시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음에는 원시인들의 수렵생활에 필요한 위장술로써 사용되다가 후에는 주술적 목적과 종교적 의식용으로 변모되고 발전되어 왔다. 탈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한순자, 2009) 우리나라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등 20여개의 지방탈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의 전통문화활성화 정책인 “한스타일” 시책에 부응하여 전통문화를 활성화하여 상품화, 세계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의 결과물으로써 생산되는 아이디어 집약적, 기술집약적 상품이며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말한다. 지역특화문화상품은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서적, 예술적 가치가 상품에 함축되어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소비자의

총체적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박혜원, 김복주, 2006).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축제는 43여개이며 대부분 공연, 연극, 전시, 컨벤션, 박람회, 체험행사, 특산물홍보, 세미나 등의 이벤트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있다(조윤진, 이유리, 2007). 이와 같이 지역축제는 한 지역의 역사, 문화, 풍토와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상징적 의미와 생산지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우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이 지역문화축제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김희숙, 2007).

최근 지역문화자원의 활성화현상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경희, 이미숙, 2009; 전지현, 앤드류 래프트리, 2009).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008년부터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북부권 유일의 국제행사로서 하회탈의 역사성 및 문화적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은 지역 전체의 활성화전략의 큰 기둥이므로 수요개척, 인재의 확보와 육성, 등의 과제에 대해서

Corresponding author; Hee-Sook Kim
Tel. +82-54-820-5500, Fax. +82-54-820-7804
E-mail: sook@andong.ac.kr

지역민 모두의 협력체제구축이 바람직하며,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권·생활권·문화권 등과의 광역연대도 필요하며 대도시나 해외지역과의 교류사업에 의한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탈” 자체뿐만 아니라 “탈춤”에 반드시 동반되는 의상의 중요성도 새로이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되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탈춤제의상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동지역의 24개 각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탈과 이에 부응하는 탈춤축제의상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장에서 직접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

2. 연구배경

2.1. 탈놀이의 종류와 의상의 특징

연구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현재 국내의 각 지역에서 전

승되고 있는 탈놀이의 특징과 의상을 분석해 본다. 국내 탈놀이의 종류와 특징은 Table 1과 같다(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2008).

① 하회별신굿탈놀이 : 6개 마당(무동, 주지, 백정, 할미, 파계승, 양반·선비)를 통하여 지배계층을 풍자함으로써 갈등과 저항을 줄여 상하간의 삶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풍자극인 만큼 등장하는 각 탈과 의상은 역할의 특성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봉산탈춤 : 다른 지역에 비해 기괴한 형상이며 종이로 만들어져 탈춤이 끝난 후 태워서 액을 날린다. 춤사위와 의상은 화려하고 힘이 있어서 황해도 산악지역의 멋이 있다. 장삼소매를 휘어잡고 뿌리치거나 한삼을 경쾌하게 뿌리치면서 두 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붙였다하는 깨개춤이 기본이다. ③ 강령탈춤 : 단오행사의 하나이며 춤사위가 느리고 긴 소매를 느리고 힘 있게 휘두르는 동작이 특징이다. ④ 양주별산대놀이 : 탈을 쓰고 집안의 잡귀를 물리치는 의식이다. 대화형식의 대사가 중심이며 의상도 생활 속의 형식이 반영되어 있다. ⑤ 북청사자놀음 : 함남 북청군에서 음력 정월 보름밤에 행하던 사자놀음이다. 춤사위가 정교하면서도 역동적이어서 한국사자탈춤의 대표격이다. ⑥ 강릉관노가면극 : 강릉단오제에 행해지던

Table 1. 국내 탈놀이의 종류와 특징

탈놀이	문화재 지정여부	탈놀이의 특징
봉산탈춤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7호로 지정	원래 봉산 구읍에서 놀던 것인데 1915년 행정기관이 사리원으로 옮기면서 사리원의 경암산 아래에서 놀게 되었다. 장삼 소매를 휘어잡고 뿌리치거나 한삼을 경쾌하게 뿌리치면서 두팔을 빠른 사위로 굽혔다 하는 깨개춤이 기본이다.
강령탈춤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34호로 지정	황해도 웅진군 부민면 강령리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 단오날 행사로 거행되었다. 춤사위가 느리고 소매를 고개 너머 휘두르는 동작이 특징이다.
은율탈춤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61호로 지정	본래 황해도 은율군 은율 소읍이 본거지로 전승되었다. 단오날이 되면 놀이꾼 전원이 탈고사를 지내고 음복한 후 길놀이를 시작했다.
양주별산대놀이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호로 지정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전승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중엽에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에서 본떠 성립되었다. 탈을 쓰고 동헌과 관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잡귀를 쫓는 의식에 참가하기도 했다.
송파산대놀이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49호로 지정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서 전승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중엽에 구파발 산대놀이 등의 영향아래 성립되었다. 조선후기 전국에서 융성했던 송파장이 서던 곳에서 놀았던 터라 이 시장 상인들의 지원으로 전승되었다.
북청사자놀음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5호로 지정	북청사자놀음은 원래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전승되어 오던 탈놀이이다. 이 지역 산하 열 한개 면과 세 개의 읍에 속하는 각 마을에서 음력 정월 15일 밤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졌다.
강릉관노가면극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 (강릉단오제)	원래 강릉단오제 때 행해지던 가면극으로 가면극 자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고,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에 속해 있다. 한국의 탈놀이 가운데 유일하게 묵극(劇)이라는 특징이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69호로 지정	경북 안동군 풍천면 화회리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 마을굿의 일종인 별신굿을 거행할 때 놀았다. 별신굿은 보통 3년이나 5년에 한번씩 신탁에 의해 행해지는 큰 규모의 서낭굿이다.
통영오광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6호로 지정	경남 통영시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 악공들의 모임에서 발달했다. 기존의 관아에서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 거행한 나례의식의 일부로 연행된 것으로 현재의 통영오광대와는 다르다.
수영야류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43호로 지정	부산 남구 수영동에서 전승되어 온 탈놀이로 조선 후기에 좌수영수사가 병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광대표를 데려와 동연한 것에서 발달되었다고 한다.
가산오광대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73호로 지정	경남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서 1880년경부터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이다. 풍물패들이 집집마다 돌며 지신밟기를 해주고 보름날 저녁에 조창 앞마당에서 놀았다.
동래야류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로 지정	1870년대부터 성립되어 부산의 동래마을에서 전승되어 왔다. 정원대보름의 상원놀이 때를 원칙으로 하되 큰 줄다리기 때에 따라 연회시기가 바뀌었다.

Table 2. 축제행사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 평가 (7점 척도 기준, 안동지역발전연구소, 2007)

평 가 항 목		2007	2006	2005	2004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축제의 사회적 영향	(1) 축제가 지역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5.51	5.6	5.69	5.63
	(2) 축제를 통한 여가활동이 확대되었다.	5.16	5.3	5.42	5.21
	(3) 축제의 내용이 교육적으로 유익하였다.	5.06	5.4	5.47	5.41
축제의 문화적 영향	(4) 축제를 통해 이 지역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5.12	5.4	5.40	5.23
	(5) 축제의 내용이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것이다.	5.21	5.4	5.38	5.28
	(6) 축제가 이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5.58	5.8	5.81	5.67
축제의 환경적 영향	(7) 축제가 이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	5.39	5.6	5.63	5.53
	(8) 축제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4.38	4.7	4.68	4.73
	(9) 다만, 축제로 인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4.27	4.4	4.12	4.53

묵극이다. 양반들에 대한 해학적 풍자, 정조관념의 강조, 풍어 및 풍농을 기원하는 무언극이므로 의상은 화려하지 않은 편이다. ⑦ 통영오광대 : 관아에서 행하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한 의식이다. 춤사위는 유연하게 이어지는 굿거리 춤과 활동성이 주가 되는 덧배기춤이 기본이다. ⑧ 수영야류 : 병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공연의식이다. 하인이나 병졸이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의 이면성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형식이며 사자와 호랑이가 춤을 추는 등 주로 들놀음의 형식이므로 의상도 각 역할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⑨ 가산오광대 :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지신밟기 의식이다. 의상은 농촌지역의 풍농을 기리는 소박함을 나타낸다. ⑩ 은율탈춤 : 황해도 강령탈춤과 유사하나 민요적 분위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Table 1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의 대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보호받고 있으며 탈놀이의 기본적인 의의는 지배계층을 풍자함으로써 갈등과 저항을 줄여 상하간의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었다. 탈놀이가 풍자극인 만큼 등장하는 각 탈과 의상은 역할의 특징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복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탈놀이 의상에서는 소매부분이 과장되어 있어서 탈춤의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려한 무대의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각 탈춤의 의미와 지역적 특징, 춤사위의 활동량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었다.

2.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현황

본 연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 평가는 Table 2와 같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지역축제가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탈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Table 3과 Table 4에 의하면,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중에는 탈만들기와 탈공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춤과 관련된 의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3. 방문객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7점 척도 기준, 안동지역발전연구소, 2007)

항목	2007년도	항목	2007년도
1. 마스크 경연	5.00	7. 인형나라	4.90
2. 디카 폰카	4.74(4.71)	8. 민속축제	5.27
3. 탈춤 그리기	5.09(5.17)	9. 하회전통축제	5.30
4. 창작탈공모전	5.18(5.21)	10. 음식문화축제	4.69
5. 탈과 마임	5.16	11. 기타체험	5.21
6. 마당극	5.40		

3. 연구방법

3.1. 탈춤의상 디자인컨설팅

2009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안동지역 24개 읍 면 동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마을탈춤의상 디자인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내용은 각 마을대표 4~5명과 각 마을의 특징과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협의한 후 탈과 탈의상을 디자인하였다.

3.2. 탈춤의상 디자인분석

① 하회별신굿놀이 및 전국의 탈춤의상의 특징을 분석한다. ② 안동지역 24개의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마을의 창작탈과 창작의상을 개발하고 패션쇼를 통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③ 개발된 탈춤의상을 발표하기 위한 패션쇼에 참가한 24개 마을 대표 48명에 대하여 디자인컨설팅과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④ 패션쇼 관람자 158명에 대하여 5점척도법에 의해 탈춤의상의 타당도와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⑤ 설문지법에 의한 질문의 내용은 창작탈과 창작의상과의 적절성 및 창작성, 창작탈, 창작의상, 탈춤축제 간의 연관성, 지역문화와의 연관성, 의상의 운동기능성, 의상디자인의 상품화 가능성, 연구결과의 실용화가능성, 의상의 사이즈적합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 선호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7점 척도 기준, 안동지역발전연구소, 2007)

구분	좋았던 점(랄호 안은 사례수)	빈도	합계
탈춤	탈춤공연(38), 외국공연(19), 탈춤배우기(8)	65	333
민속놀이	차전놀이(7), 선유줄불놀이(4), 마당극(30), 전통축제(19), 음식축제(13), 사물놀이(1), 굿마당(4), 뽕다리밟기(1)	79	
기타공연	인형극(12), b-boy댄스공연(10), 무술시범(7), 뽕리댄스(2)	31	
체험프로그램	체험활동(33), 어린이 체험(8), 탈만들기(11), 탈그리기(7), 마스크경연대회(26), 디카·폰카(5)	90	
기타	불거리다양(39), 다양한 프로그램(29)	68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탈춤의상의 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24개 마을의 탈과 탈춤축제의상디자인의 결과는 Fig. 1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사회·문화·환경적 영향 평가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탈과 의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 12개 탈놀이를 분석한 결과, 전통탈춤의상은 대체로 전통의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탈과 의상은 탈춤의 내용을 반영하되 대체로 서민의 복색에 비해 화려하여 축제의상임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지신밟기의 성격을 가진 탈춤은 악귀를 몰아내기 위한 과장된 탈과 의상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光元佶伯, 2000; 上野和彦, 2008).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탈춤의상은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탈춤축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하회탈보다 다양한 탈을 개발함을 전제로 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탈춤의상은 창작탈에 부합하는 창작의상임을 전제로 하였다. 마을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디자인컨설팅을 통하여 안동지역 24개 마을을 대표하는 탈춤의상을 각각 디자인하고 제작하였으며 패션쇼를 통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Table 5는 패션쇼를 통해서 발표된 탈춤의상의 디자인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을대표 48명은 당초 디자인컨설팅의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임을 확인하였다.

Table 5와 Fig. 1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탈춤의상의 디자인 특징은 각 마을의 특산품을 그 이미지로 한 경우가 7건, 마을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개발한 경우가 7건, 각 마을 특유의 전통문화자원을 이미지화한 경우가 10건이었다. 의상의 소재와 색상도 공단, 명주, 무명, 안동포 등 전통적인 소재와 금박, 은박, 자수, 오방색 등의 색상을 주로 선호하였다. 이것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산업화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국내의 전통문화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이명준, 2007; 이미식, 2006; 이순임, 2006; 日本地域社究, 2004).

Table 5. 개발된 의상디자인의 특징

읍면동	디자인 이미지	의복소재 및 색상	디자인컨설팅과의 부합성
풍산읍	소	금박, 적색과 황색	○
와룡면	고구마	금박, 갈색과 황색	○
북후면	마탈	공단, 연갈색	○
서후면	국화	공단, 황색	○
풍천면	양반	무명, 백색	○
일직면	양파	명주, 분홍색과 홍색	○
남후면	고드름	은박, 백색	○
남선면	문필봉	공단, 갈색	○
임하면	삼배, 할매, 할배	안동포, 연갈색	○
길안면	사과+송이버섯	공단, 녹색	○
임동면	사과	공단, 적색	○
예안면	선비	공단, 연자주색	○
도산면	선비	공단, 백색	○
녹전면	일출	공단, 적색과 녹색	○
중구동	7층전탑	공단, 적, 황, 녹색	○
명륜동	왕건	공단, 황색	○
용상동	용	공단, 청색과 황색	○
서구동	양반	공단, 연황색	○
태화동	해와 나무	공단, 녹색과 갈색	○
평화동	비둘기	공단, 연청색	○
안기동	미륵불	공단, 자주색	○
옥동	학	공단, 백색	○
송하동	노국공주, 공민왕	명주, 분홍색과 감색	○
강남동	원이 엄마	공단, 적색	○

Fig. 1에 나타나 있는 24개 마을의 탈과 ① 탈춤축제의상디자인의 특징은 탈춤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탈춤의 격렬한 운동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대의상으로서의 관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현대인의 축제의상으로서의 공감감이 있어야 한다. ④ 의상의 심미성과 상품성으로서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⑤ 안동지역 전통미에 대한 수용이 요구된다. ⑥ 장기적인 활용가능성이 요구된다. ⑦ 착용자의 다양한 신체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김희숙, 2009; 박혜원, 김복주, 2006; 장남정 외, 2007; 조현상, 2005; 한국(디자인

Fig. 1. 개발된 탈과 탈춤제의상

인진홍원, 2007)).

4.2. 탈춤의상의 소비자만족도 분석

개발된 탈춤제의상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작성, 탈과 의상의 연관성, 운동기능성, 상품화 및 실용화 기능성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탈춤제의상의 운동기능성 및 사이즈적합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탈의상 및 춤제의상의 향후 발전가능성 및 산업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축제가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 등의 현상과 더불어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탈춤제의상을 24개 마을 단위로 개발하여 현대인의 탈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24개 마을의 대표탈이 제시되었고 이에 적합한 탈춤제의상을 개발하여 패션쇼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본 연

Table 6. 소비자만족도 설문 결과

설문 항목	설문 내용	응답 내용(158)					평균 점수
		항목별	응답자 수(명)				
1	창작탈과 창작의상과의 적절성, 창작성	①	②	③	④	⑤	3.92점
				28	114	16	
2	창작탈, 창작의상, 탈춤축제 간의 연관성	①	②	③	④	⑤	3.91점
			1	34	102	21	
3	의상의 운동기능성	①	②	③	④	⑤	4.09점
				15	113	30	
4	의상디자인의 상품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06점
				20	109	29	
5	연구결과의 실용화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3.97점
			5	15	117	21	
6	탈춤의상의 사이즈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4.18점
				14	102	42	
전체 평균							4.02점

구에서 제시된 탈춤의상의 디자인 특징은 각 마을의 특산품을 그 이미지로 한 경우가 7건, 마을의 대표적 관광자원을 개발한 경우가 7건, 각 마을 특유의 전통문화자원을 이미지화한 경우가 10건이었다. 의상의 소재와 색상도 공단, 명주, 무명, 안동포 등 전통적인 소재와 금박, 은박, 자수, 오방색 등의 색상을 주로 선호하였다. 이것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산업화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것은 국내의 전통문화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Fig. 1).

탈에 조화되도록 디자인된 탈춤의상의 디자인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탈춤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탈춤의 격렬한 운동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대의상으로서의 관람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현대인의 축제 의상으로서의 공감에 있어야 한다. ④ 의상의 심미성과 상품성으로서의 요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⑤ 안동지역 전통미에 대한 수용이 요구된다. ⑥ 장기적인 활용가능성이 요구된다. ⑦ 착용자의 다양한 신체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연관람자 158명과 패션쇼 마을참가자 48명의 소비자만족도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탈과 의상의 연관성, 의상의 심미성과 운동기능성, 상품화 가능성, 특히 탈춤의상의 운동기능성과 의복사이즈 적합성이 높이 평가되어 장기적으로 축제의상 또는 무대의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속적인 연구가 요

망된다.

참고문헌

- 김희숙. (2007). 안동지역 유교문화와 연계한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컨설팅. *07문화체육관광부 지방대학활용 지역 문화컨설팅 결과보고서*. 안동.
- 김희숙. (2009). 탈춤축제의상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74-177.
- 박혜원, 김복주. (2006). 문화상품개발 실태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65-68.
- 안동대학교 안동지역발전연구소. (200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조사 연구*. p. 91.
-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2008). 대한민국대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 안동. pp. 32-46.
- 이명준. (2007). 한국전통자수를 응용한 현대패션디자인 연구. *복식*, 57(3), 142-150.
- 이미식. (2006). 고구려 와당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개발연구. *복식*, 56(6), 194-196.
- 이순임. (2006). 모시 소재의 문양에 따른 감성이미지 평가. *복식문화연구*, 14(6), 95-103.
- 장남정, 김윤경, 주잔나. (2007). 패션산업에서의 친환경디자인. *복식문화연구*, 15(6), 143-150.
- 전지현, 앤드류 래프트리. (2009). 전통문화 정체성에 관한 조형성 특성과 패션문화상품개발연구. *복식*, 59(7), 65-76.
- 정경희, 이미숙. (2009).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디자인 개발 전략 연구(제1보). *지역문화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복식*, 59(7), 17-33.
- 조윤진, 이유리. (2007).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복식*, 57(10), 74-86.
- 조현상. (2005). 산학협력프로그램과 학교기업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1), 25-32.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디자인 대토론회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산업화방안*. 지식경제부, pp. 142-150.
- 한순자. (2009). 카니발 축제의 가면에 대한 연구. *복식*, 59(7), 35-47.
- KBS 인사이드 아시아. (2007). 유교-아시아의 힘. 서울: 예담.
- 日本地域社究. (2004). *統産業新時代-昔ながらのモノづくりが今に生きる*. 東京: 東北産業活性化センタ.
- 日本地域社究. (2004). *地域の文化資*. 東京: 東北産業活性化センタ.
- 光元信伯. (2000). *ふるさとの統産業*. 東京: 太平出版社.
- 上野和彦. (2008). *統産業産地の行方-統的工芸品産業の現在と未*. 東京: 芸大.

(2010년 1월 11일 접수/ 2010년 3월 11일 1차 수정/2010년 3월 11일 게재확정)